

## 한 성택 선생님 영전에

우리 New York 주 Albany 지부의 회장님으로 오랫동안 우리의 기둥이 되어 주시던 선생님께서 5 월 15 일에 돌아가셨다는 슬픈 소식이다. 코로나바이러스에 안 걸리시고 댁에서 mrs. 한의 보살핌을 받으시다가 90 세를 두 달 앞두고 돌아가셨다.

1980 년도 초부터 서울의대 뉴욕주 올바니 지부를 만들어 우리의 회장님으로 두 달에 한번 씩 음식을 한 접시씩 해 들고 모여 많이 웃고 즐겁고 정다운 시간들을 몇 십년을 함께 보냈다.

2-3 년에 한번씩 해외여행도 다니고, 지나고 보니 그때가 우리들의 황금시대였다.

한선생님은 큰 비디오 기계를 들고 오셔서 우리를 모델로 음악까지 곁들여 근사한 여행기념 비디오를 만들어 나눠 주셨다. 과묵하시지만 술이 거나하게 오르신면 오셔서 mrs. 한의 얼굴을 들여다 보시는 애교를 부리셔서 우리가 웃곤 했었다. 가라오케를 하면 ‘애모’ 노래는 mrs. 황이 제일 애교있게 부르니 얼른 부르라고 하셨었는데 모두 나이가 많아져서 인생의 마지막 과정인 죽음이 찾아와 정다운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신다.

지난번 뵈을 때 구두끈이 풀어졌다고 Dr. 이남수씨가 무릎을 꿇고 구두끈을 매드리는걸 보며 코끝이 찡 했었는데 그때가 마지막으로 뵈게 되었다.

한 성택 선생님의 명복을 비오며 mrs 한과 가족께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Mrs. 황 철 (1966) 올림